다산포럼

‘홍익 자연’으로 한반도 전쟁·기후 위기 극복하자

이기영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호서대학교 명예교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격화돼 3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되었던 스페인 내전처럼 신무기 실험장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 독재 세력은 이미 만리장성을 평양까지 연결해 놓고 30만 탱크부대가 압록강 도하 훈련을 하고 있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권유로 군비 증강을 서두르는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선언하고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은 초유의 친일 검찰 정권의 등장으로 민주 진영은 물론 기득권 우파 세력도 내분으로 파시즘이 우려되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비화가 걱정되는 지경이다.

우리를 둘러싼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대리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남북이 서로 비방을 멈추고 직접 평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1만 년을 넘게 내려온 우리 배달민족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을 되살려 남북이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자.

며칠 전 TV로 본 영화 ‘사일런트 워’(Silent War)는 스페인 내전을 다뤘다. 당시 스페인은 민주적 선거에 의해 출범한 공화국 정부와 반란군인 우파 왕당파, 유산가, 지주, 보수교회 등 기득권파로 나눠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다. 이 영화는 반란군에 점령당한 공화국 지역의 어느 작은 마을의 주민들 사이의 잔혹한 대결을 묘사한, 이념 대결의 광기가 서린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념의 세례는 악마성을 배태해, 같은 국민·민족·마을 사람은 물론 가족의 공동체 의식도 파괴하여 처절한 피의 복수로 지옥을 만든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역사를 보면, 지배를 추구하는 자가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지배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이념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분리시켜, 다른 편 사람들을 제거의 대상이나 정복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례들이 관찰된다. 그 사례들 중의 일부가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으로 우리나라는 민족이 서로 원수가 되어 수백만 인명 피해와 전 국토의 파괴, 천만 이산가족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했다.

몇 년 전 스페인 여행지에서 피카소의 게르니카 작품을 보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참혹한 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느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내에 미·중이 부딪치면서 대만과 한반도에서 3차 세계대전의 불이 붙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는 한국전쟁 이전에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등이 발발하였던, 지정학적으로 오래된 화약고이다. 만일 한국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휴전선이 지척에 있는 서울은 제2의 게르니카가 될 수도 있다.

1960년대 어린 시절만 해도 교실에서 우리는 서양 유물론에 뿌리를 둔 좌우가 아닌 ‘배달의 민족’이란 자부심을 배웠다. 배달은 태양의 빛을 받는 밝은 땅으로 하늘의 뜻에 따라 사는 ‘천손의 자손’이란 뜻이다. ‘홍익인간’이란 우린 모두 지구라는 한 몸을 이루는 장기와 지체들이니 자연의 만물들처럼 탐욕을 버리고 서로 도와 널리 이로워야 온몸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인류 평화의 메세지이다. 그런데 권력을 사유화시킨 사대주의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뉴라이트 세력이 준동하면서 교정의 단군상들이 밤새 목이 잘려나가는 수난이 이어지고 개천절이 외면당했다.

이제 우리는 하루 빨리 강대국들에 대한 저자세 일변도의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같은 한민족이 더 이상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갈라져 싸우지 말고 3·1운동 때처럼 수천 년을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 평화를 위한 화해를 이뤄내자. 또한 지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자연 중심의 ‘홍익 자연 문화’를 정립, 전 세계에 전파해 보자. 대한민국은 이미 한류 문화를 세계에 확산시키며 세계 10위권 경제와 6위의 군사 강국, 세계 정상의 문화 대국으로 도약해 인류를 선도할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젠 ‘홍익 자연 문화’로 3차 세계대전은 물론 인류를 절멸에 이르게 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 환경 평화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김하림의 차이나 4.0

중국 14차 전인대 이후 남는 궁금증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향후 중국의 5년을 결정할 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 13일 종료했다. 전인대는 헌법과 법률 제정, 예결산 심의, 국가 주석과 정부 요인 선출 등 막강한 권한과 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전해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과의례로 추인하는 측면이 강해서 비중이 낮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향후 5년의 방향과 목표, 정부 조직의 담당자들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있기도 하다.

작년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후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의 순서로 새 지도부 일곱 명이 선출되었고, 올해 전인대에서 관례에 따라 서열 순서로 4위까지 국가 주석, 국무원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 선출되었다. 전인대는 국가 부주석에 한정(韓正) 부총리를 선출했다. 국가 부주석 자리는 통상 당 서열 6~7위가 맡아왔고 차기 국가 주석 지정석이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1998년, 시 주석은 2008년 국가 부주석에 선출되고 5년 뒤 국가 주석에 올랐다. 이 관례가 깨진 것은 2018년 전인대로, 국가 부주석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닌 당시 69세의 왕치산이 선출됐다. 이때 2연임 10년인 국가 주석 임기 제한도 철폐되었다.

한정 부주석은 작년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되지 않아서 은퇴가 예상된 인물이다. 국가 부주석으로서 일정 부분 국사에 관여하겠지만 큰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국가 부주석의 선출이 자아내는 궁금증은 시 주석 아래의 부주석 자리가 은퇴 직전 인사들에 대한 예우에 불과한지 공청단 출신에 대한 안배 차원인지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점이다. 이 점이 모호해서 역으로 4연임을 전망하는 견해가 다시 강력하게 대두했다.

전인대는 총리로 리창을 선출했다. 총리직은 당 서열 2위로 국무원을 이끄는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이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이다. 미·중 갈등 격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높은 실업률, 요동치는 부동산, 지방재정 악화 등의 난제에 직면한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궁금하다. 취임 일성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하면서 이도 쉽지 않다고 강조한 점에서 위기의식이 드러난다. 리창은 저장성 출신으로 시 주석이 절강성에 근무할 때 인연이 있다. 이후 장쑤성과 상하이시 서기를 지냈다. 중앙 행정 경험이나 부총리 경험이 없는 약점과 국제적 시각도 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또 이전에 총리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권한이 있었으나 현 1강 시스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우려와 전망도 있다. 반면에 개혁 개방의 선두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테슬라 중국 공장을 유치한 점 등으로 긍정적 평가도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여 조기 해제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켜 백지 시위로 야기된 정치적 리스크를 해결한 뚝심도 있다. 경제 담당 부총리가 된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맡은 정산제(鄭栅潔) 등과 같은, 내수 주도의 발전 모델을 중시하는 국내 경제 전문가들과 한 팀을 이루어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궁금하다.

국무원 부총리 네 명 중 수석부총리에 해당하는 상무부총리는 당 서열 6위인 딩쉐샹이 맡았다. 일곱 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가장 젊지만 최고지도자의 필수조건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수장 경험이 없다. 그는 2013년 중공중앙 판공청 부주임 겸 중공중앙 총서기 판공실 주임으로 발탁돼 그동안 시 주석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급속히 출세한 인물이다. 2007년 시 주석이 상하이에 근무할 때의 인연이 있으나 7개월 정도 함께 근무했다. 딩 부총리는 기계와 재료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시 주석의 2012년 ‘하이테크 국가전략’ 수립과 ‘중국 제조 2025’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테크노 크라트이다. 미·중 무역 마찰이 이제는 ‘경제·과학기술·안보’갈등으로 복합화되고 반도체를 위시한 하이테크 기술의 대중국 교역이 미국에 의해 강제로 금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가 5년 후 나아가 10년 후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도 궁금하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측근들로 구성되었고 이번 전인대의 국무원 인사에서도 시 주석과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은 대부분 퇴임했다. 모든 권한이 1강에게 집중되는 통치 체제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신속한 판단과 결정, 강력한 집행력으로 국내외 난국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유연성이나 대체 방안이 결여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향후 5년, 그 후 5년 중국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여전히 궁금하다

기 고

사갑(死甲)

이중섭
소설가

지난 2월 두 번째 주말은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고향을 향하다가 시간 여유가 있어 중간에 5·18 망월 묘지로 차 머리를 돌렸다. 묘지 입구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조금 넘었다.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자주 망월 묘지를 찾지만 이번에는 의외로 오랜만에 들렀다. 오랜만이다 보니 막상 시골 친구의 묘를 찾는데 조금 헤맸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의 묘는 묘역 맨 뒤에 위치했었다. 그곳에 가보니 그의 묘가 없었다. 황당했지만 다시 아래 묘역을 둘러봤다. 친구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없었다. 뭐지? 무언가 변했는데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그 다음 아래 묘역을 살피니 그곳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다. 그러니까 맨 뒤였던 친구의 묘역 뒤로 어느새 두 군데의 묘역이 더 생긴 것이었다.

얼떨떨한 마음으로 친구 묘 앞에 섰다. 올해가 우리 또래의 환갑이기에 그를 찾은 것이다. 그에게 그 사실을 직접 말해 주고 싶었다. 묘석 앞에 서니 전에는 느끼지 못한 묘한 감정이 일었다. 알베르 카뮈의 ‘최초의 인간’에서 주인공인 아들이 죽은 아버지의 묘 앞에서 느끼는 감정과 비슷했다. 카뮈의 죽은 아버지는 스물아홉 살이고 살아 있는 아들 카뮈는 마흔 살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느꼈던 죽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父情)과 연민이 아니라 자기보다 열한 살이나 적은 나이에 죽은 한 인간으로서의 젊은이에 대한 고통과 불쌍한 감정에 휩쓸린다.

친구의 묘 앞에 놓인 사진을 보는 순간 이전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얼굴이 갑자기 아주 색다르게 보였다. 지난 사오십 대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사진에는 티셔츠를 입은 어린 친구의 모습이 있었다.

“얘걔, 아주 어린 꼬마잖아!”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 어려도 그처럼 어리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 사진 속 친구는 아주 앳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저씨, 누구예요?” 내 나이는 환갑이고 친구는 열여덟 살에 삶을 마감했다. 열여덟의 나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기 어린 시절이다. 어른처럼 거들먹거리지만 비린내가 나는 앳된 나이에 그 어린 영혼은 아무것도 모른 체 갑작스레 생을 박탈당했다. 죽은 영혼들이 우주 어느 공간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한없이 주위를 맴돌고 있을 것이고 물리적인 힘을 쓰지 못하지만 어떤 정기를 계속해 뿜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 캄캄한 시절을 견뎌낸 용기도 그들의 기운 때문이었을 거라 짐작한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묘 앞에 서 있을 때의 느낌이 천천히 바뀌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그가 죽은 나이 그때의 느낌 그대로 다가왔다. 하지만 살아 있는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도 따라 나이를 먹었다. 기억 속이든 착각이든 상관없었다. 지금은 죽은 그와 살아 있는 내 나이가 사십 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그를 여전히 나와 같은 나이로 생각하며 그를 생각한다. 그를 찾을 때마다 그 또한 같이 나이를 먹은 걸로 간주했다. 녀석의 묘비 앞에 서면 그와 나는 일 대 일의 관계로 서 있다. 그의 지난 세월과 나의 지난 세월이 몽땅 사라져 버리고 둘만이 서 있다.

시간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나는 그를 늘 나와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했다. 무생물체가 되었지만 나와 비슷한 감정을 가진 생물체로 생각했다. 그날 가만히 그의 사진을 보니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조금 어색했다. 무언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감정의 흐름이 밀려왔다. 이제야 사물과 대상들이 이전과 다르게 다가오는 나이가 되어서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가 죽었던 열여덟 살의 나이로 항상 서 있는지도 모른다. 그 앞에 서면 그가 죽었던 그때 그 나이로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여튼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감정이 환갑을 맞아 흐르고 있었다.

친구를 뒤로 하고 망월 묘지를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죽은 자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성장하며 살아 가고 있다. 살아 있는 자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죽은 자에 대한 어떤 기억도 살아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살아 있으니까. 기억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태어나 자라고 수명이 다 되면 사라지는 것이 생물과 다름없다.

살아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의 환갑을 사갑(死甲)이라 부른다.

社說

가뭄에 멍드는 전남 바다…수산 피해 어쩌나

올 들어 전남 연안의 낙지와 꼬막, 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가뭄이 바다 생태계까지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군·보성군 수협 등에 따르면 올 들어 갯벌에서 잡히는 낙지가 줄어 위판 가격이 크게 올랐다. 강진군 수협의 경우 낙지 위판고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간 105만 마리였으나 2022년 3월부터 1년간은 66만 마리로 반토막이 났다. 특히 가뭄이 본격화된 올 2월부터는 낙지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이로 인해 큰 낙지 한 마리의 소매가격은 평년의 배인 1만 2000~1만 4000원까지 올랐다. 마을 공동 어장에 낙지 목장을 조성한 보성 석간마을에서도 갑자기 낙지가 잡히지 않아 어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

세계로 수출되는 전남 수산물인 김 역시 타격을 입고 있다. 올해 전남의 김 생산량은 지난 10일 현재 26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t)에 비해 15%나 감소했다. 득량만과 여자만에서 나는 꼬막은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서 크기가 줄고, 알맹이가 비어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여수 안포마을은 피꼬막 작업을 해봐야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고 손해만 나니 아예 포기했다고 한다.

수산물 피해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역대 최장의 가뭄으로 바다로 유입되는 민물과 빗물이 크게 줄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바닷물 염도는 높아진 반면, 육지에 있는 각종 영양분이 유입되지 못해 미네랄·플랑크톤 등 먹이가 사라지면서 수산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계속되면 천혜의 수산물 보고인 전남 갯벌과 바다의 이상 징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민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수산 당국은 가뭄으로 인한 어패류·해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로 이어질 경우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객선 자동차 추락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여객선에 오르려던 승용차가 추락해 일가족 세 명이 참변을 당했다. 어이 없는 사고에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완도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께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에서 A(76) 씨가 몰던 SM3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와 아내(73), 손녀(29)가 모두 숨졌다. 해경 측은 운전자가 차도선(여객과 동시에 개방된 적재 구역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에 차량을 싣기 위해 후진하다 옆으로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인명 피해가 그렇듯 이번 사고도 안전 불감증과 무관하지 않다. 희생자들이 타려던 배는 209t 급으로 승용차 26대를 실을 수 있고 승선 가능인원은 173명인데도 선원은 세 명뿐이었다. 선장과 기관사를 제외하고 선원 한 명이 승선 인원 170여 명과 선박 안전 관리까지 맡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차량을 배에서 빨리 내리게 하기 위해 선원들이 위험천만한 후진 주차를 요구하는 것도 일상이다. 차량 승선이 탑승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데도 카페리나 차도선 등 여객선에 차량을 실을 때 후진하거나 전진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차량을 실을 때 운전자를 제외한 인원의 탑승을 제한하는 등 기초 매뉴얼도 갖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했지만,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보면 퇴행 조짐이 뚜렷하다. 크고 작은 여객선 사고는 물론 선착장 차량 추락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고등이나 다름 없는 크고 작은 해양 사고를 좌시하면 결과적으로 화를 키우게 된다. 정부와 당국은 차제에 여객선과 선착장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노(NO) 마스크

어제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해제됐다. 2020년 10월 13일 이후 꼭 888일, 2년 5개월 만의 일이다. 하지만 병·의원과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해제 시행 첫날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했다.

그동안 마스크는 피부의 일부나 다름없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루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입에서 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인 방패였다.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지다 보니 눈매 만으로도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마스크 대란’을 겪기도 했다. 마스크 가격이 껑충 뛰었음은 물론 구매가 어려워졌다. 급기야 정부는 개인당 구매 가능한 요일과 매수를 제한하는 ‘5부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즈음엔 접하기 힘든 백신보다 ‘KF94’ 마스크가 유일한 희망처럼 여겨졌다.

대구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했을 때 광주시와 여러 민간단체에서 마스크를 지원했다. 여유 있는 병상도 제공했다. 타 지역에서도 발 벗고 나섰다. 의료진들은 유례없는 팬데믹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구로 달려갔다. 이러한 지역간 연대와 공동체 정신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했다. 또한 직접 상대의 입을 보며 소통하는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들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직은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 던질 수 없다. 그러나 대유행의 정점을 지난 데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표정도 여유로움을 되찾았다. 개인에 따라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모양새다. 코로나 초기에 경직돼 있던 모습과 천양지차다.

우리에게 마스크는 물고기의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생동하는 봄기운을 한껏 호흡해 본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